



영동한 상상...내가 한국인 첫 우주인이 됐는데?

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다.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에 응모한 3만6천206명 중 우주 공간에 올라가는 최초 한국인이 내가 됐다.

생리현상 흡수트렁크로 해결

(기자취형 속바지)

◇우주복은 얼마나 무거워. 남·녀 구분이 있나. 미 항공우주국(NASA)에서 우주복용 사용하는 우주복(EMU: Extravehicular Mobility Unit)의 무게는 114kg정도.

◇배설물이 동등 떠다닐텐데? 우주 여행시에는 우주복 속의 최대 흡수내의 (MAG)라는 남녀 공용의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다.

러 공기를 이용해 빨아들인다. 용변은 수분을 제거하고 화물간에 보관했다가 귀환시 지구 대기권에서 마찰열을 이용해 불태운다.

우주복 무게 114kg...무중력 상태선 활동 편안 화장실은 진공식...음식 소화는 지상과 같아

수 있었다. 여성은 언뜻 아이들이 쓰는 대형 기저귀가 연상되는 '흡수 트렁크'로,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이다.

모두 200인 분량의 건조시킨 대변과 사용한 화장지를 탱크에 저장할 수 있었다.

통상 냉장이나 냉동을 할 필요가 없도록 진공 건조 상태로 가공되어 있지만 준비된 음식을 데우기 위한 전자레인지나 보온함의 일부



미항공우주국(NASA) TV가 촬영한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 승무원들의 모습. 승무원들이 왕복선 안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다.

‘아리랑 4호’ 왜 없을까

우주과학에도 ‘미신’은 있다

죽을 ‘死’ 연상 ‘4호’ 건너 뛰어

다목적 실용위성 2호(아리랑 2호)가 발사되는 등 현대 과학의 첨단을 걷는 우주 과학에도 ‘미신’으로 불리는 요소들이 적용되고 있다.

과학기술부는 지난 1999년 12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한 데 이어 7월 아리랑 2호, 오는 2008년 아리랑 5호, 2009년 아리랑 3호를 각각 쏘아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.

3호와 5호가 바뀐 이유는 과학기술부가 1996년 ‘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’을 마련한 뒤 지난 2005년 5월 아리랑 위성의 발사시기를 최종 확정하면서 발사시기가 바뀌었다.

반면 아리랑 5호는 성격이 다른 ‘합성 개구면 레이더(SAR·Synthetic Aperture Radar)’를 장착, 구름이 끼거나 어두운 밤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한반도를 관측할 수 있다.

1m급 고해상도의 MSC를 탑재한 2호가 운용되는 상황에서 3호보다는 5호 발사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사 순서를 바꿨다는 것이 과기부 설명이다.

그렇다면 왜 4호는 없는 걸까. 과기부 한 관계자는 “아리랑 4호를 발사하지 않을 경우 5호의 명칭을 4호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과학자들 사이에 ‘죽을(死)’을 연상시키는 ‘4’자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는냐는 주장이 제기돼 4호를 건너뛰게 된 것”이라고 전했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영화안내. Happy Time. 영화안내

메가박스. 구.현대아파트사거리. 메가박스

엔터시네마. 7관 카탈리안해적 / 과물 / 과물

엔터시네마. 7관 카탈리안해적 / 과물 / 과물

컬럼버스 시네마. 1관 카탈리안해적 / 과물 / 과물

컬럼버스 시네마. 1관 카탈리안해적 / 과물 / 과물

씨너스 광주 8개관. 8월 초 오픈. T.383-3445~7

엘지공인중개사. 롯데백화점부근 상업용지. 3층상가 및 주차장

일가공인중개사. 삼가부지 및 삼가부지. 4층상가 50평 4층건물 2층

LC타워(주). 첨단지구 LC타워. 3층 212평 88평

현대공인중개사. 금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중개. 3층 212평 88평

21세기부동산컨설팅(주). 경매 투자 투자상담 환영!! 2005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!!

대인동심일부동산.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.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